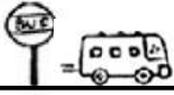


주최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관 : 전국행진 기획단

주관단위 :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민교협,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문화연대, 이윤보다인간을,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자의힘, 평택범대위 문예위, 평화인권연대, 평화바람, 경기민중연대,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언론개혁시민연대, 수원반전평화연대, 학생행동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지역주관단체: 인천행진기획단,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문제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매항리국제폭격장직도이전저지 군산대책위, 광주민중연대, 창원진보연합, 부산민중연대, 울산민중연대, 대구민중연대, 전교조 경북지부, 대구민중연대, 전남 총북도연맹, FTA저지 총북운동본부, FTA저지 서울운동본부



2006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전국행진 기획단-

노무현 정권, 정말 큰일을 내려고 합니다.

미군은 감축한다는데 초호화판 미군 전쟁기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경찰과 용역강패를 동원해 마을 파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 직도에는 공군 사격장을 내주겠다고 하고, 파주 무건리에는 종합훈련장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날아가 폭격을 가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폭격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전쟁당사국으로 삼아 폭격을 가해올 것입니다. 미국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평택 미군기지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주민들의 생존권, 그리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도외시한 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미국의 전쟁 놀음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개방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이미 한국 경제의 60%를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들이 먹어치웠습니다. 외국 주주들이 공기업도, 주식시장도, 금융시장도 모두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미 노동자들의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비정규직을 맘대로 늘릴 수 있고, 농민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다시 IMF보다 강력한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광우병에 걸린 미국 소고기까지 수입해야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평택미군기지가 계획처럼 확장, 이전이 되고, 한미 FTA도 체결되면 지금의 불안한 평화나 생존권은 더욱 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모두 공염불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미동맹의 재편?강화라는 미명 하에 노무현 정권이 폭력을 동원해 강요하는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2006년, 미국과 노무현 정권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물러날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전국행진 일정 및 코스

일시	활동	춧불	숙박지
8일(금)	서울 -> 의정부		
9일(토)	상동	인천	인천
10일(일)	인천	군산	군산
11일(월)	군산	광주	광주
12일(화)	광주	나주	나주
13일(수)	창원	창원	창원
14일(목)	창원	부산	부산
15일(금)	부산	울산	울산

일시	활동	춧불	숙박지
16일(토)	대구	대구	대구
17일(일)	휴식	휴식	구미
18일(월)	구미	구미	안동
19일(화)	안동	제천	제천
20일(수)	제천	청주	청주
21일(목)	대전	대전	안산
22일(금)	안산	부천	부천
23일(토)	부천	서울	전야제
24일(일)	서울		

일정: 2006년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코스: 서울 - 의정부 - 인천 - 군산 - 광주 - 나주 - 창원 - 부산 - 울산 -
대구 - 구미 - 안동 - 청주 - 안산 - 부천 - 서울 -(4차 평화대행진)



전국 행진 8일 의정부 행진 일정

시간	행사	장소
10:00 - 11:00	기자회견	청와대 앞
11:00 - 13:00	점심식사(도시락)	서울
13:00 - 14:00	이동	의정부
14:00 - 17:00	약식 집회, 의정부 행진	미2사단정문-의정부역
17:30 - 18:30	간담회	의정부역 근처
18:30 - 19:30	저녁 식사	의정부역 근처
19:30 - 21:00	촛불문화제	의정부 역
21:00 - 23:00	숙소 이동, 평가, 취침	삼공육 보충대 마을안쪽 2층 휴집

◎ 주요 행사

▶ 출발 기자회견(청와대 앞 10시)

*제목 : 강제철거 규탄! 한미 FTA 3차 협상 중단!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출정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9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 지역간간담회

▶ 의정부 행진: 거리행진 및 거점 선전

▶ 촛불문화제

*일시: 2006년 9월 8일(금) 늦은 7시

*장소: 의정부역 광장

*주최 :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후원 :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와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 행진



전국 행진 9일 인천 행진 일정

시간	행사	장소
7:00	기상	의정부
8:00 - 9:00	아침 식사	의정부
9:00 - 10:00	이동	의정부-인천
10:00 - 13:00	인천터미널 앞 집결 → 행진 시작 → 문학산 입구 집회	터미널 집결
13:00 - 14:00	점심식사	인천
14:00 - 15:00	지하철 선전전	인천
15:00 - 18:00	부평역 행진시작→부평미군기지앞 집회	인천
18:00 - 19:00	저녁식사	인천
19:00 - 21:00	촛불문화제	동암역
21:00 - 23:00	간담회, 평가, 취침	인천

◎ 주요 행사

▶ 인천 행진

<오전행진> 인천터미널(선전전) → (선동) → 문학산 경기장(선전전) → (선동) → 문학산 입구 (집회) → (선동) → 문학산 경기장 (식사) → 산개 (지하철 선전전)

<오후행진> 부평역(선전전) → (선동) → 부평 미군기지(약식 집회) → (선동) → 백운역 → (선동) → 십정사거리 → (선동) → 동암역 (식사, 촛불문화제)

▶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반대, MD 규탄” 집회

*시간 및 장소 : 오전 11시,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앞

▶ 오후 7시, 촛불집회

*시간 및 장소 : 오후 7시, 동암역 북광장



전국 행진 10일 군산 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인천
7:00 - 8:00	아침 식사 후 이동	인천-군산
11:00 - 12:00	간담회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12:00 - 13:00	점심 식사	군산
13:00 - 18:00	KT앞 거점선전→은파유원지	군산
18:00 - 19:00	저녁식사	군산
19:00 - 21:00	촛불문화제	해태마트 사거리
21:00 - 23:00	간담회, 평가, 취침	군산

◎ 주요 행사

▶ 직도폭격장 및 평택미군기지 간담회 및 토론회

- *일시: 9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 *내용: 직도폭격장 및 평택미군기지 저지투쟁 관련 간담회

▶ 군산행진

- *장소 및 진로: -> KT앞(구 경찰서) 거점선전전 진행 13:30 - 14:00 -> 구시청앞 (14:05) -> 명산사거리 (14:20) -> 금광동 삼성아파트 고개 서문교회(오룡동) (14:30) -> 현대코아 (14:50) -> 롯데 아파트(해태마트 사거리 방향)(15:10) -> 극동주유소 (15:30) -> 은파 수변 무대 거점 선전 16:00 - 18:00

▶ 촛불문화제 “평택, 직도의 투쟁에 서다. 전략적 유연성과 서해안 벨트”

- *일시: 9월 10일 저녁 7시
- *장소: 해태마트사거리



전국 행진 11일 광주 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군산
7:00 - 8:00	아침선전전	군산 대우자동차
8:00 - 9:00	아침 식사	군산
9:00 - 11:00	이동	군산 - 광주
11:00 - 12:00	간담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종식 선전전	광주
13:00 - 14:00	점심식사	광주
14:00 - 15:00	금호타이어로 이동 금호타이어 교대 선전전	광주
15:30 - 18:00	광주행진	광주
18:00 - 19:00	저녁식사, 간담회	광주
19:30 - 21:00	촛불문화제	광주
21:00 - 23:00	평가, 취침	광주

전국 행진 12일 나주 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광주
7:00 - 8:00	아침선전전	광주 공단
8:00 - 9:00	아침 식사	광주
9:00 - 11:00	이동	광주 - 나주
11:00 - 13:00	간담회	나주
13:00 - 14:00	점심식사	나주
14:00 - 18:00	나주행진, 거점선전, 집회	나주
18:00 - 19:00	저녁식사	나주
19:00 - 19:30	거점선전	나주
19:30 - 21:00	촛불문화제	나주
21:00 - 23:00	평가, 취침	나주



전국 행진 13일 창원 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나주
7:00 - 8:00	아침 식사	나주
8:00 - 11:30	이동 도착	나주 - 창원
12:30 - 13:30	점심식사, 중식 공장 선전(미정), 간담회(미정)	창원
13:30 - 18:00	창원행진, 거점선전, 집회(미정)	창원
18:00 - 19:00	저녁식사	창원
19:00 - 19:30	거점선전	창원
19:30 - 21:00	촛불문화제	창원
21:00 - 23:00	간담회, 평가, 취침(장소 미정)	창원

전국 행진 14일 부산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창원
7:00 - 8:00	아침선전전	창원
8:00 - 9:00	아침 식사	창원
9:00 - 11:00	이동	창원 - 부산
11:00 - 13:00	부산역 광장 선전 활동	부산역
13:00 - 14:00	점심식사	부산
14:00 - 18:00	부산행진, 거점선전, 집회	부산역-서면 쥬디스 태화
18:00 - 19:30	간담회, 저녁식사	부산
19:00 - 21:00	촛불문화제(한미정상회담 규탄)	서면천우장
21:00 - 23:00	평가, 취침	부산(미정)



전국 행진 15일 울산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부산
7:00 - 8:00	아침선전전	부산
8:00 - 9:00	아침 식사	부산
9:00 - 11:00	이동	부산 - 울산
11:00 - 13:00	선전전	울산
13:00 - 14:00	점심식사	울산
14:00 - 18:00	울산행진, 거점선전, 집회	울산
18:00 - 19:00	저녁식사	울산
19:00 - 19:30	거점선전	울산
19:30 - 21:00	촛불문화제	울산
21:00 - 23:00	간담회, 평가, 취침	울산
책임단장: 오종렬		

전국 행진 16일 대구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울산
7:00 - 8:00	아침선전전	울산
8:00 - 9:00	아침 식사	울산
9:00 - 11:30	이동	울산 - 대구
11:30 - 13:00	선전전	대구
13:00 - 14:00	점심식사	대구
14:00 - 18:00	대구행진, 거점선전, 집회	대구
18:00 - 19:00	저녁식사	대구
19:00 - 19:30	거점선전	대구
19:30 - 21:00	촛불문화제	대구
21:00 - 23:00	간담회, 평가, 취침	대구



전국 행진 18일 구미-안동 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구미
7:00 - 8:00	아침선전전	구미
8:00 - 9:00	아침 식사	구미
9:00 - 11:00	구미 행진	구미
11:00 - 13:00	이동	구미-춘천
13:00 - 15:00	점심식사와 간담회	구미
15:00 - 16:00	안동이동	구미=>안동
16:00 - 19:00	안동행진 / 저녁식사	구미미정
19:00 - 20:30	촛불문화제	구미
20:30 - 22:30	간담회, 취침	구미

전국 행진 19일 제천행진

시간	행사	장소
7:00	기상	안동
8:00 - 9:00	아침 식사	안동
9:00 - 11:00	선전전	안동
11:00 - 13:00	제천이동	제천
13:00 - 14:00	점심식사	제천
14:00 - 16:00	제천행진	제천
16:00 - 18:00	제천행진(간디학교 도착)	제천
18:00 - 19:00	저녁식사	제천
19:00 - 19:30	거점선전	제천
19:30 - 21:00	촛불문화제	제천
21:00 - 23:00	간담회, 평가, 취침	제천



전국 행진 20일 청주행진

시간	행사	장소
		제천
7:30	기상	제천
8:00 - 10:00	이동	제천 - 청주
10:00 - 12:00	청주행진	청주
12:00 - 13:00	점심식사	청주
13:00 - 14:30	청주지역 간담회	청주
14:30 - 18:00	청주행진	청주
18:00 - 19:00	저녁식사	청주
19:00 - 19:30	거점선전	청주
19:30 - 21:00	촛불문화제	청주
21:00 - 23:00	간담회, 평가, 취침	청주

전국 행진 21일 대전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청주
7:00 - 8:00	아침선전전	청주
8:00 - 9:00	아침 식사	청주
9:00 - 11:00	이동	청주 - 대전
11:00 - 13:00	선전전	대전
13:00 - 14:00	점심식사	대전
14:00 - 18:00	대전행진, 거점선전, 집회	대전
18:00 - 19:00	저녁식사	대전
19:00 - 20:30	촛불문화제	대전
20:30 - 23:00	이동	대전 - 안산



전국 행진 22일 안산-부천행진

시간	행사	장소
6:00	기상	안산
7:00 - 8:00	아침 출근 선전	안산
8:00 - 9:00	아침 식사	안산
9:00 - 11:00	이동	안산-부천
11:00 - 13:00	간담회, 점심식사	부천
13:00 - 14:00	부천 행진	부천
14:00 - 18:00	부천 행진	부천
18:00 - 19:00	저녁식사	부천
19:00 - 20:30	촛불문화제	부천
20:30 - 22:00	성공회대 이동	안산=> 성공회대
22:00 - 23:00	평가 및 정리	

<23일> 부천-서울 평화대행진

▶ 오전 10시 : 부천-서울 평화대행진(200-300명 규모의 행진대열)

* 코스 : 10시 부천역 출발 - 성공회대 - 영등포 - 대학로 - 광화문

▶ 4차 평화대행진 전야제

<24일> 서울, 4차 평화대행진

▶ 강제철거강행 노무현 규탄! 전쟁기지반대! 한미FTA강요 미국규탄!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 촉구< 4차 평화대행진>

*일시 및 장소: 9월 24일, 서울



**강제철거 강행 노무현 정부 규탄! 전쟁기지한미FTA 강요 미국 규탄!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 촉구**

4차 평화대행진

1. 목적

- 주택강제철거 계획을 무산시킨다.
-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의 광범위한 여론을 확산시킨다.
-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기조

-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이 다종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강제철거를 저지하고 전면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출한다.
-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의 광범위한 여론을 확산시킨다.

3. 개요

일시 및 장소

2006년 9월 24일(일) 오후 2시 서울 00

4. 평화대행진의 흐름(안)

◎ 9월 23일 전야제 진행 (오후 7시, 광화문)

- 전국행진단을 중심으로 가능한 단위가 결합하여 문화제 진행
- 청년행진단을 중심으로 48시간 실천 전개
- 다양한 단체에서 성격에 맞는 부대행사 및 부스 운영 (전시 및 참여마당)



◎ 9월 24일

◦ 행사의 기초

- 5.4 사태 이후 침체되어 있는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일하고 일치된 행동(집단 퍼포먼스, 구호, 소품 등)을 통해 대오의 일체성과 기세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행사에 많은 내용과 순서를 담기보다는 집단적인 일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또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영상과 문예물, 참가자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홍보물 등으로 입체적인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제철거를 막아내자! 한미FTA협상 저지하자!

9.24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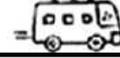
노무현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자

또 한 번의 살해행위, 주택 강제철거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정대집행은 이 시간까지 가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극단적인 폭력행위는 이 땅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모조리 삭제되는 과정이었다.

3, 4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헤치고 시멘트를 부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에 이어 5월 4일, 대추 초등학교를 부수어내고, 들판에 철조망을 치고 군부대를 주둔시키며 주민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땅을 잔인하게 빼앗아갔다. 그리고 이제 다시 9월 빈집강제철거를 통보하며 피투성이가 된 주민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활쫓고 있다.

현재 대추리, 도두리 일대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전입신고조차 금지시키고 있으며 군경의 헬기가 마을 하늘을 낮게 날고 있는 등, 주민과 평택지킴이의 일거수일투족은 공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가운데 제2의 '여명의 황새울'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지금의 빈집강제철거는 행정절차상 현재의 평택기지 확장 공사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행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7,8월 내내 빈집철거예정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긴장을 고조시켰다 풀었다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 기만적인 전략의 목표는 빈집철거를 통해 스물다섯 여명의 지킴이들을 주민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주민들의 심리적 압박의 정도를 극단으로 몰고 가려는 것에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를 외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보상 문제로 왜곡시켜 이 투쟁을 하나의 이익집단의 문제로 치부하려했던 그 탄압의 방식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피맺힌 울분을 조롱하는 노무현 정권은 강제철거행위를 통해 다시 한번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다.



한미FTA, 전쟁을 부르는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

2006년에는 한국 민중의 삶의 미래가 내걸린 한미 FTA협상에 대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각계 시민들의 반대투쟁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FTA를 반대하는 민중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완전한 편입을 위해 변경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못 박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통해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다. 9월 초, 미국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3차 협상은 미국의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요구로 관철되고 있다. 한미FTA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농업을 포기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투기자본의 무한한 이윤을 보장하는 규제철폐 등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적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략이며 이는 한국민중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계획을 가차없이 추진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미국 주도의 군사 금융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초민족적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자신의 미래로 짊어질 것인가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한국민중의 선택의 기로에 한미FTA저지투쟁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이 존재한다.

승리는 '투쟁의 전국화' 에 달려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겠다고 결의한 스물다섯명의 평택지킴이들과 끊임없이 현지를 찾아 모여드는 시민들의 평화의 발걸음만이 무지막지하게 자행될 강제철거를 막아내는 힘이다. 시민들은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기 위해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찰의 불심검문 앞에 연극을 꾸며대는 굴욕을 참아내야 한다. 이 기가 막힌 인권유린상황들을 제한적으로라도 알려냈던 언론보도조차 이제 곧 차단될 예정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에서 노무현 정권은 한치 앞의 내일의 전술을 예측할 수도 없도록 상황을 오리무중으로 빠뜨리고 투쟁의 주체들을 고도의 심



리적 압박감으로 몰아넣으며 상식과 윤리를 굴복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FTA는 협상테이블에서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부각시키며 민중의 미래가 걸린 문제의 본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빈집강제철거에 이어 10일 주민퇴거의 절차까지 가차 없이 진행시켜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을 무참히 짓밟을 것이고 한미FTA 3차 협상단은 한국민중들의 분노와 요구를 묵살한 채 요식적인 행정절차만을 공개하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말 것이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경제적 영역으로의 확대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사활적 이해관계로 재구성된 새로운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일말의 주저함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9월, 대추리 도두리에서 진행될 그 처절한 강제철거저지 투쟁은 모든 것을 빼앗긴 이 땅 민중의 분노와 울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보편적인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출입이 봉쇄된 현지에서의 제한적인 투쟁만으로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도 농사짓자!”라는 대중적인 투쟁의 방향은 현재 들판을 대부분 빼앗겨 현실적으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평택투쟁의 현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투쟁의 방향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의 보편성과 대중적 정당성을 되찾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미FTA저지투쟁과 노사관계로드맵저지투쟁 등 2006년 하반기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무현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의 큰 대중투쟁들이 끊임 없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싸움이고, 또한 어느 것 하나 모든 운동주체들의 연대와 단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싸움일 수 없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이 돌파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추리, 도두리에서의 처참한 투쟁에 내재한 극명한 상징, 즉 민중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이를 빼앗겨버린 분노를 바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평택투쟁이 확산시키는 그 대중적 공분은 한미FTA를 저지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막아내는 민중의 분노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우리의 싸움이 대추리, 도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확산시켜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해낼 수 있을 때, 폭력 살인정권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민중의 총궐기는 진실로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하반기 극악무도한 강제철거의 폭력을 막아내는 한미FTA를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동력이 될 것이다.



9.24 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자

평택 범대위는 9월 1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10만 준비위원을 조직하는 9.24 평화대행을 통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조직하는 길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포항 건설노동자의 처참한 죽음과 연이은 건설노조투쟁의 탄압,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3차 협상에 대한 반대, 9,10월 이어질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 공사, 이 모두가 9.24 평화대행진으로 모이는 국민들의 분노가 되어야 한다.

오는 9.24 평화대행진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결절점이 될 것이다. 땅과 집을 빼앗긴 주민들의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은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빼앗긴 민중 모두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다.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대추리, 도두리의 싸움을 전국적인 투쟁전선으로 확장시켜내는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미FTA 3차 협상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9월 24일까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한미FTA협상반대 전국행진은 상반기 전국 곳곳에서 평택과 FTA 저지투쟁을 일구어왔던 지역의 운동단위들과 함께 9.24평화대행진의 정치적 의미를 함께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9.24 대회의 10만 준비위원 모집사업을 전국화하고 9.24 대회에서의 강력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실천들을 함께 고민하고 무장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10,11월로 이어지는 민중총궐기투쟁에서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과 폭력성에 철퇴를 가하는 투쟁을 함께 결의해나가야 한다.

2006년 하반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은 더 이상 하나의 투쟁 사안이 아니다.

평택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강제철거의 폭력을 하반기 민중투쟁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선전 선동해내자. 평택투쟁이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을 타격하는 정치적 방향성과 공명할 때 평택과 한미FTA, 노사관계로드맵 투쟁 모두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철거 임박 평택 범대위 긴급지침 (9. 6일자)>

- ◎ 비인간적, 반인권적 주택 강제철거를 막아냅시다.

- ◎ 평택 범대위 모든 소속단체는 주택 강제철거에 맞춰 비상태세를 구축한다.
 - 주택 강제철거가 임박했음을 모든 회원들과 신속히 공유한다.
 - 평택지킴이를 최대한 모집하고 상황 발생 시 대추리로 신속히 집결한다.

- ◎ 주택강제철거의 부당성을 범국민적으로 알려낸다.
 - 각 단체는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 9월 7일부터 10일 까지 매일 오후 5시에 국방부 앞 규탄집회를 진행한다.
 - 7일(목) 7시 광화문 촛불문화제는 규탄집회 이후 예정대로 진행.
 - 9월 11일부터 대추리로 집결하고 매일 저녁 7시에 원정삼거리에서 촛불집회 진행.

- ◎ 주택강제철거 전날 각 단체 대표자 및 회원은 대추리로 집결하고, 원천봉쇄할 경우 그 자리에서 연좌농성을 전개한다.

- ◎ 비인간적, 반인권적인 주택강제철거를 강행하는 날
 - 평택범대위 소속 단체의 회원들은 대추리로 총력 집중한다.
 - 단체 명의로 강제철거 규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 국방부에 항의한다.
 - 강제철거 규탄 촛불집회(사이버 촛불시위 포함)에 적극 참여한다.
 - 강제철거를 강행한 저녁에 국방부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 평택집결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 등에 대한 항의규탄을 진행하고 주요도시 및 미군기지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강제철거 중단 촉구 평택범대위 긴급 기자회견◎

9월 11일(월) 오전 10시, 국방부 앞